

일산 차이나문화타운 하반기 착공 (중부일보 2004.02.12)

일산 차이나문화타운 하반기 착공

【고양】 일산 차이나문화타운조성 사업이 최종 합의 과정을 거쳐 올 하반기 착공될 전망이다.

【고양】일산 차이나문화타운조성 사업이 최종 합의 과정을 거쳐 올 하반기 착공될 전망이다. 특히 고양시가 한국국제전시장 지원시설 부지 투자자 공모에 나선 가운데 지원시설부지 9 개 필지중 최종 합의에 이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 일 시와 서울차이나타운개발(주)에 따르면 한국국제전시장 지원시설 부지에 추진되고 있는 일산 차이나문화타운 조성 사업의 개발 조건에 최종 합의하고 이달 안에계약을 체결한 뒤 설계, 행위허가 등 각종 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서울차이나타운은 이를 위해 지난 6 일 그동안 시가 제시해 온 조건을 수용하겠다고 시에 문서로 공식 통보했다. 시는 그동안 사업 부지 감정가 매각 및 주거시설 불허 원칙을 고수해 왔다. 이에 따라 일산 차이나문화타운 부지 2 만 1 천여평 가운데 1 만 4 천 500 여평은 감정가에, 나머지 특급호텔(312 실) 부지는 관광진흥법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조성원가에 각각 매각되고 주거시설은 여건 변화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서울차이나타운은 5 천억원을 들여 오는 2009 년까지 2 단계로 나눠 차이나문화타운을 건립할 계획으로, 내년 10 월 세계화상(華商)대회 개최에 맞춰 우선 중국 문화의거리(4 천평)와 중국 전통정원(6 천평)을 건립할 계획이다. 서울차이나타운 측은 “행정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 올 하반기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와 서울차이나타운은 지난 2002년 4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데 이어 지난해 2월 가계약까지 맺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토지 매각 가격 등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팽팽히 맞서 백지화 위기에까지 몰렸었다. 한국국제전시장은 2013년말까지 일산구 대화동 23만여평에 3단계로 나눠 건립되는데, 작년 5월 1만 6천여평 규모의 전시시설을 짓는 1단계 공사에 착수, 내년 3월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일부 지원시설에 대한 투자가 원활치 않아 호텔, 아쿠아리움 등 6개 필지 3만 2천평에 대해서는 투자자 공개 모집이 진행 중이다.

허일현기자/hur20027@joongboo.com

http://www.joongboo.com/html/news_view.asp?articlenum=11687700000000&div=7